

석사학위작품

퍼즐을 찾아서

2020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남 보 경

석사학위작품
지도교수 강관식

퍼즐을 찾아서

Finding puzzle pieces

2020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남 보 경

석사학위작품
지도교수 강관식

퍼즐을 찾아서

Finding puzzle pieces

위 작품을 미술학 석사학위 작품으로
제출함

2020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남 보 경

남보경의 미술학 석사학위 작품을 인준함

2020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퍼즐을 찾아서

우리의 모습은 마치 '퍼즐' 같다.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은 우리가 만나온 사람들과 여태껏 받아온 교육들을 대변해주는 듯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타인의 조각들과 내 조각들로 더 큰 퍼즐을 맞춰가는 듯하다.

그러한 퍼즐 같은 세상 속엔 꽤나 낭만적인 것들로 가득하다.

각자의 조각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 일상적이지 않고 특별한 물체,

즉 가까운 곳에서 쉽게 보며 접할 수 없는 것들의 구성은 내가 느끼는 낭만의 척도와 삶에서 느끼는 감정을 통한 성숙을 표현한다. 금박, 동박과 같은 박(箔) 종류, 금분, 은분과 같은 분(粉)종류, 그리고 다른 안료보다 입자가 커서 빛을 반사해 반짝임을 나타내는 석채의 사용이 행복과 기대감을 나타냄과 동시에 이상과 현실의 내밀한 충돌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충돌이란 누구나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것에 대한 한계이고 화면 구성에 있어서 부드럽지 않은 직선으로 구획을 나누어 놓은 것은 그것을 대변한다. 또한 이러한 공간 구성은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벽을 뛰어넘는 우리의 모습과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상은 또 다른 퍼즐 조각이 된다.

맞춰지지 않을 것 같던 수년 전의 조각과 오늘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혹은 당연히 그 자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본래의 자리가 아닌 곳에 억지로 끼워 맞춰진 모습이기도 했던 세상 속에서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퍼즐을 맞춰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마주하는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이며 또한 나의 이야기이다.

넓은우물

72.7×72.7 cm 판넬위에 마, 황토, 장지, 석채 2018



탐색전

72.7×60.6 장지예 분채 2017



안성과 스무살

76×63.6 cm 퍼즐에 석채 2017



보이는게 전부가 아니다

16×12 cm 퍼즐에 혼합재료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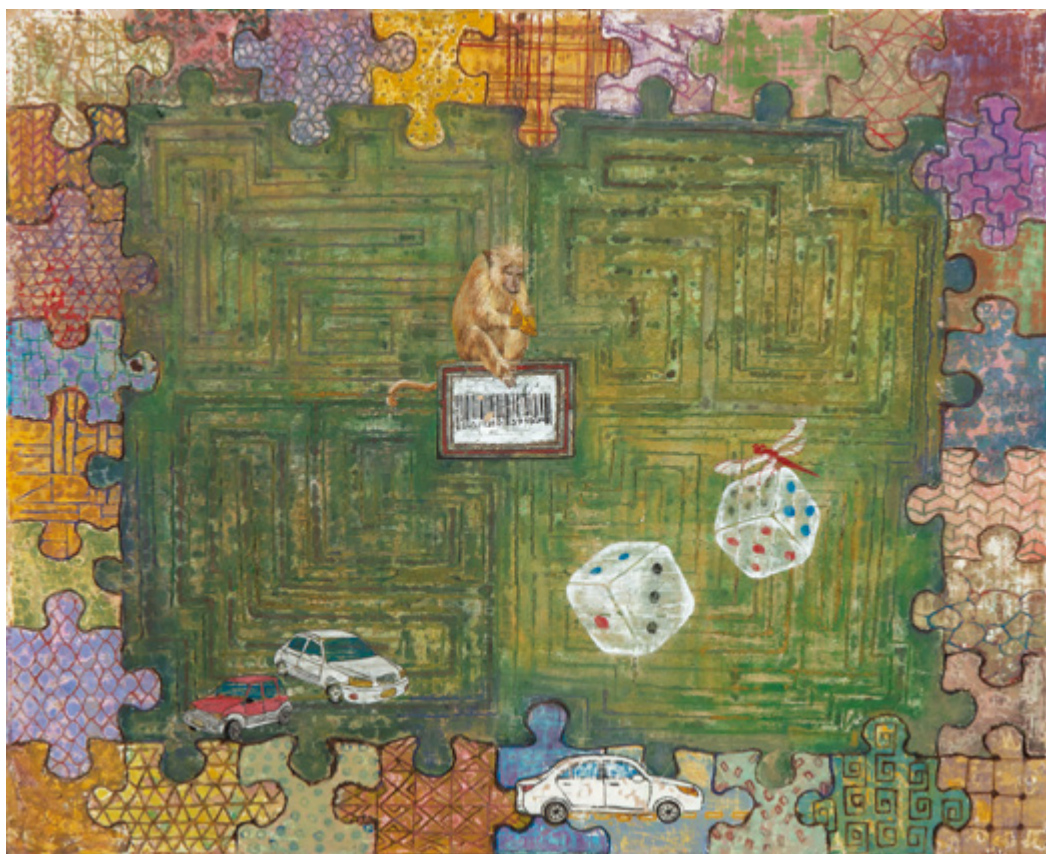
낭만과 현실사이

24.5×22 cm 퍼즐에 석채 2018



주사위 던지기

116.8×91 cm 장지에 석채 2018



천동벌거숭이

72.7×60.6 cm 판넬위에 마, 황토, 석채 2018



낭만에 대하여 I

160×100 cm 퍼즐에 석채, 동박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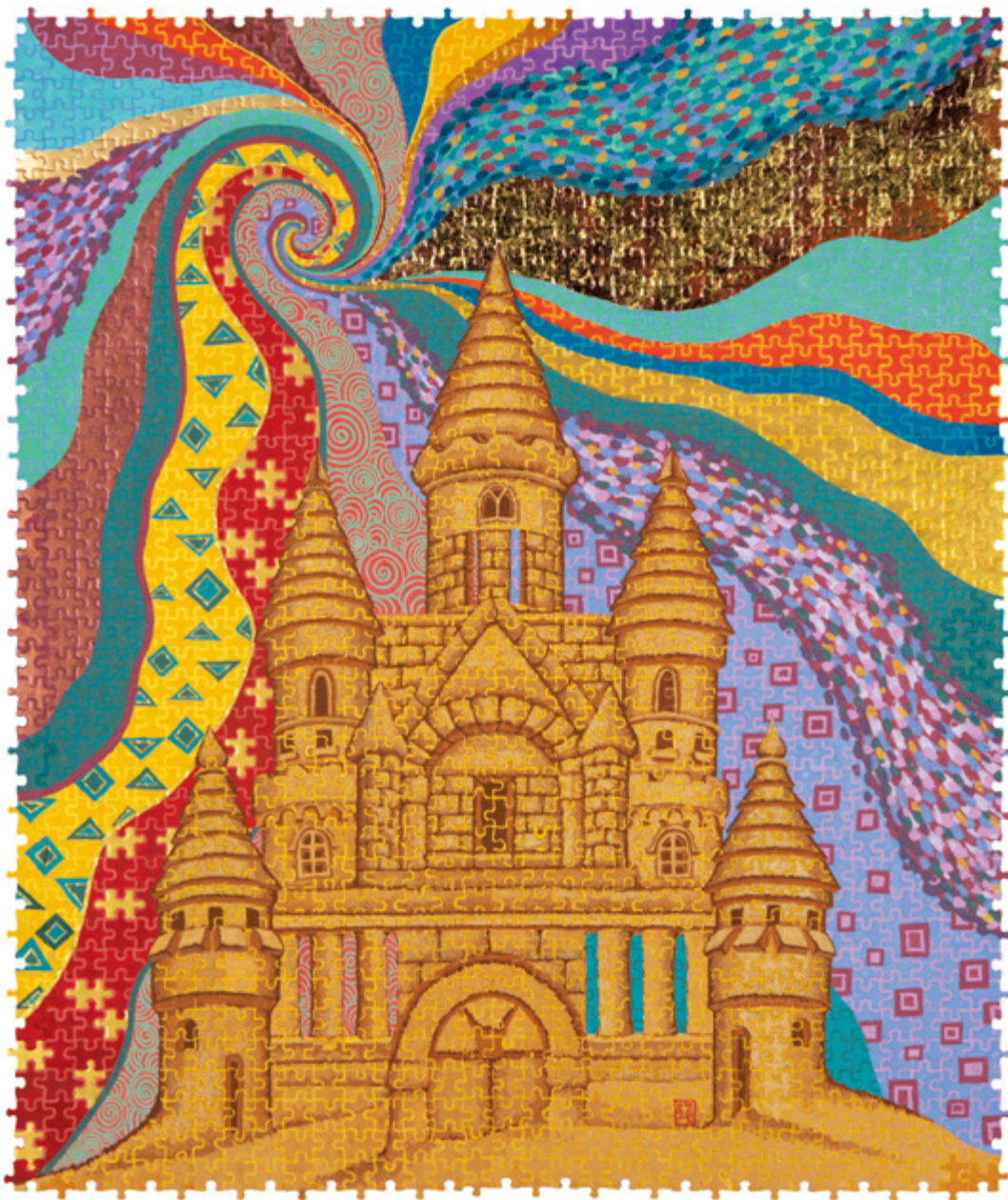
왓지 한 궂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예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최백호

낭만에 대하여 卍

다시 못 올것예 대하여

74.7×62.6 cm 퍼즐예 석채 및 혼합재료 2020



당신과 나의 마지막 순간은

74.7×62.6 cm 퍼즐에 석채, 금박, 동박 2019



은밀한 게임을 시작하지

165.2×133.3 cm 퍼즐에 석채 및 혼합재료 2020



그림자마저 내 곁을 떠나간 어두운 밤,
침대 위에서 오롯이 나만 아는 세상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나만 아는 그 곳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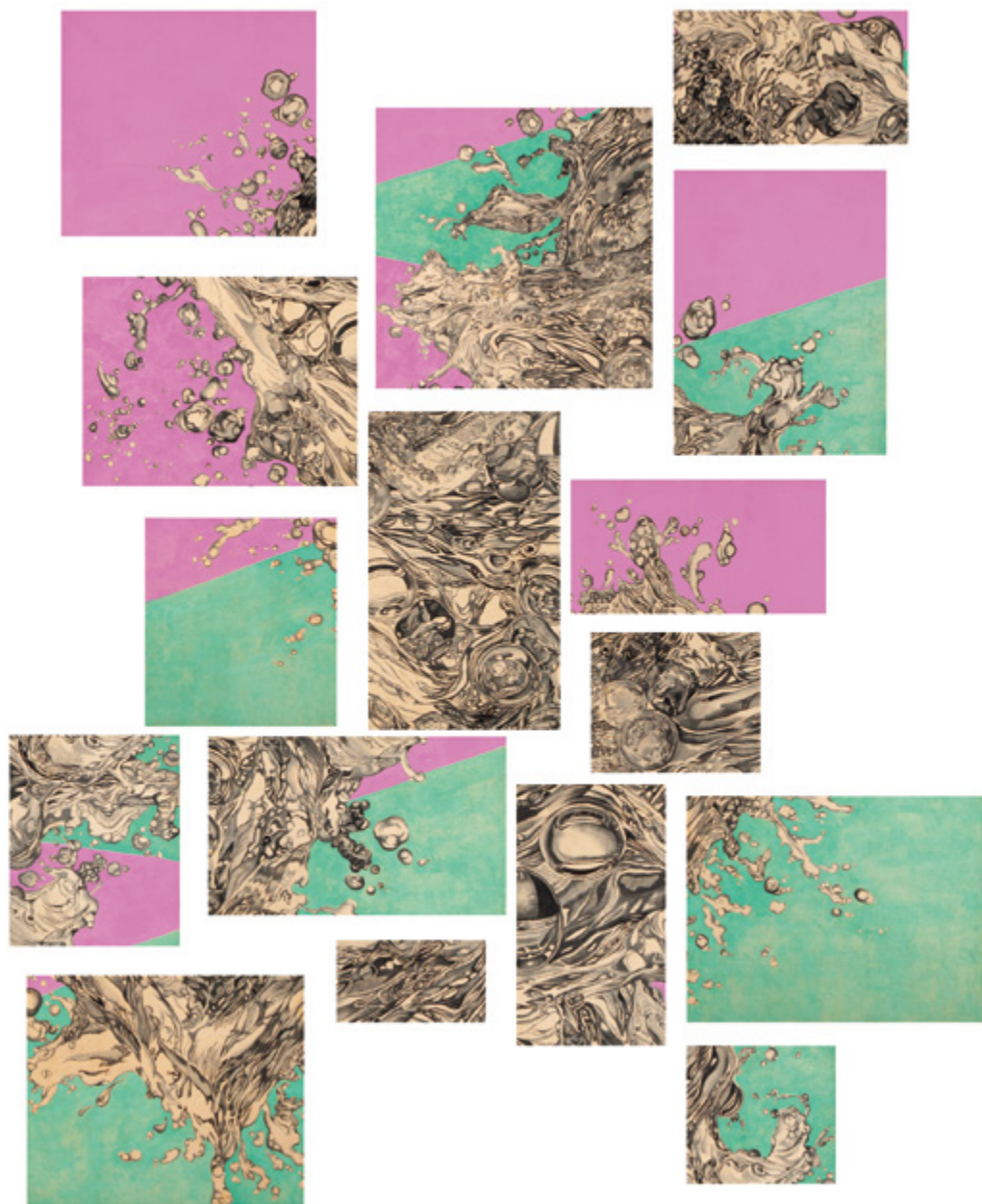


당신에게 낭만이란 무엇인가요?
아름답고 낯선 곳에서의 버벅거림이 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들려오는 음악소리가,
현실에서 한걸음 떨어져 감상과 정서로
충만한 채 세상을 보는 아름다운 시선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낭만에 대하여 II

74.7×74.7 cm 퍼즐에 석채 및 혼합재료 2020



물의모양 : 삶의 모양Ⅱ

162.2×130.3 cm 장지에 먹과 석채 2015



물의모양 : 삶의 모양 I

55×47 cm 퍼즐에 석채 2020



화면 뒤의 너 완전히 혼자야

183×151 cm 장지에 석채, 분채 2014

T'es tellement seul derrière ton écran
Tu penses à c'que vont penser les gens
Peut-être, je devrais m'éloigner
Tout le monde, il veut seulement la fame

화면 뒤의 너는 완전히 혼자야
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것들을 생각해
글썸, 난 거리를 뒤편에서
모두들 인기만을 원해

Angèle

La thune 中